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지루하다. 그날이 그날 같고 하나도 신나는 일, 즐거운 일이 없다. 그렇지만 말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에머슨이라는 미국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신이 헛되게 불평하면서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바로 이것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어제 아니고 내일도 아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날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날은 오늘 뿐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날인가! 그래서 나는 오늘은 나의 생애에 남은

회복기의 삶

모든 날 가운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새날이고 첫날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새날과 첫날에 있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첫 사람’이고 또 ‘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하나만 바뀌도 세상은 갑자기 눈을 뜨는 세상이 되고 눈부신 세상, 찬란한 세상이 된다. 부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루한 세상, 짜증 나는 세상, 누더기 같이 낡은 세상이라고 꾸중하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만 그런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의 말을 인용해 보고 싶다. 보들레르는 시를 이야기하면서 시를 쓰는 시인은 회복기에 이른 환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회복기란 마치 어린 시절로 의 회귀와도 같다. (...) 아이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본다. 그는 언제나 도취해 있다. 우리가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아이가 형태와 색채를 흡수하는 기쁨과 가장 닮아 있다.”

우리로 주변에서 가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앞에 걸렸다가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 그에게 세상은 오

직 눈부신 세상이고 새로운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찬란한 세상일 뿐이다. 그에게 있어 무엇 하나 새롭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그는 조그만 일에도 흥분하는 사람이고 감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암이란 질병에 걸렸던 것은 분명히 불행이고 악운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이후의 날들은 축복의 날들이 될 것이다. 실은 나도 그런 일을 겪은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2007년의 일이나가 벌써 13년 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분명히 죽을병에 걸렸었지만 끝내 살아서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런 이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낯마다 나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됐고, 사소한 일에도 취한 사람이 됐고,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됐다. 보는 것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아름다웠다. 그야말로 그것은 취한 삶이었다. 술을 마시지 않고서도 취하는 날들이었다. 믿지 못할 일이다. 그냥 그것은 터닝 포인트(전환점)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반전의 인생이었다. 비록 몸은 병들고 왜소해졌으며 많은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지만,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고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겨우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다고 투정하는 사람에서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가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진정한 인생이 지루하십니까? 따분하십니까?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시나?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세상만사 살아가는 기대 수준을 조금쯤 낮출 필요가 있다. 조금쯤 부드럽고 다정한 눈길에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외부 지형적이고 타인 지형적이다.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 일상적인 일, 흔한 일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림계만 느껴지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들레르식으로 말한다면 회복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부디 자기 자신을 해바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채송화라고 여겨 보시라. 세상이 대변에 달려져 보일 것이다. 큰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채송화는 애당초 키가 작은 꽃이기에 해바라기처럼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社說

‘의대 유치 확정’ 이제 더 이상 갈등 없도록

전남 지역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유치가 사실상 확정돼 의료 인프라 구축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모두 4000명 늘리기로 했다. 정원 가운데 매년 300명씩 총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며, 2022학년도부터는 의대 입학 전형으로 ‘지역 의사 선발 전형’도 도입된다.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당정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 의대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남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 시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전남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

돼 온 터서 의대가 신설되면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거점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염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그동안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 경쟁을 해 온 만큼 벌써부터 대학 및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의대라는 공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대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할 때다. 지역이기주의로 갈등에 휩싸이기보다는 지역 의료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고 의대 신설 효과를 지역발전으로 유도하는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필수 의료 서비스는 지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대명제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남도와 해당 자치단체는 의대 신설 혜택을 지역에서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목포대와 순천대에 의대 정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전 공대 주변 ‘부영 공화국’ 막아야 한다

한전공대에 골프장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잔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부영주택은 최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골프장 부지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곧바로 골프장 잔여 부지 35만㎡에 최고 28층 아파트 5328세대를 짓겠다고 나주시에 골프장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 측의 요구에 따라 녹지 대지 위에 서 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특별한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죽음은 삶과 전혀 다른 결이 아니라, 삶의 한 장면에서 불과하다. 죽는다는 것은 살면서 겪는 자질구레하고 특별한 것 없는 일련행은 중의 하나일 뿐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은 삶에 대한 막연한 고정 관념, 말하자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든든함을 무력화시킨다. 대신 그 자리를 삶을 향한 진솔한 애정으로 채운다. 아니, 애정이라기보다 초라한 삶의 실상을 마주하며 느끼는 연민에 가깝다. 까뮈가 ‘느낀’ 삶의 부조리가 이런 것일까? 아니면 보잘 것 없는 삶에 대한 연민 때문일까? 삶의 목표는 없고 살아야 할 이유 역시 없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찾고 또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삶에 내가 주는 선물이다.

의 몫이다. 나주시와 전남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부영 측이 기여한 바를 아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영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 주는 특혜 논란을 낳을 수 있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혁신도시 조성이나 한전공대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한전도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받는 입장이라 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한전공대 주변이 고층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주 혁신도시가 ‘부영아파트 도시’가 되는 것을 반길 주민들은 없다. 게다가 부영은 그동안 하자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적이 많았는데 혁신도시 아파트의 절반을 부영이 차지하는 것을 반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주시와 전남도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왜 사니?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깡년기라고 혼자 멋대로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제법 시간이 흐른 지금 돌아서 보면 그것은 일단 열정의 부재였다. 열정이 왜 사라졌는지, 사라진 지 얼마나 지났는지, 그리고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뭐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재’라는 무미건조하고 불가치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열정의 부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다.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 내고 싶은 뜨거운 욕망이었을까?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잘 살았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며 크게 아쉬울 것 없이 말이다. 그런 까닭에 열정의 원전을 욕망이라고 하기엔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석연찮은 구석이 여전

히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이유, 그러니까 인생 목표의 부재였다. ‘과연 살아갈 이유도 없이 어떻게 살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단연컨대 삶의 목표는 인생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애초에 태어난 이유가 없으니 살아야 할 목표도 없다. 매우 단순명쾌하다. 원칙도 없고 구체적인 목표도 없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것은 생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은 생존 본능을 이룬저런 논리로 포장하여 그럴싸한 삶의 이유, 삶의 의지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한다. 반면 원칙이나 궁극적인 목표 없이 구체적인 목표만 있는 삶은 마치 인생을 100미터 달리기 시합하듯 사는 것과 같다. 몇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는 구체적인 목표는 그 공허함 때문에 결국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곁에 슬그머니 다가온 ‘소확행’도 있다. ‘올로’(YOLO)가 발전한 형태인 소확행은 삶의 기쁨을 지

금 이 순간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찾는 것이다. 이를테면 갸우뚱을 손으로 짚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된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 같은 것이다. 소확행의 세계에서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나 계획 따위는 필요 없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도 박탈당한 자에게 소확행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반대로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스스로를 착취하며 살아가는 성공한 현대인에게도 역시 소확행은 무의미하다. 소확행의 길을 가는 순간 성공한 현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만다. 소확행을 선택하려면 지금 본능을 이룬저런 논리로 포장하여 그럴싸한 삶의 이유, 삶의 의지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한다. 반면 원칙이나 궁극적인 목표 없이 구체적인 목표만 있는 삶은 마치 인생을 100미터 달리기 시합하듯 사는 것과 같다. 몇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는 구체적인 목표는 그 공허함 때문에 결국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곁에 슬그머니 다가온 ‘소확행’도 있다. ‘올로’(YOLO)가 발전한 형태인 소확행은 삶의 기쁨을 지

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수행자 신타르타는 삶의 이유가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지향할 때 비로소 삶이 아귀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였다. 삶은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취약한 대지 위에 서 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특별한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죽음은 삶과 전혀 다른 결이 아니라, 삶의 한 장면에서 불과하다. 죽는다는 것은 살면서 겪는 자질구레하고 특별한 것 없는 일련행은 중의 하나일 뿐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은 삶에 대한 막연한 고정 관념, 말하자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든든함을 무력화시킨다. 대신 그 자리를 삶을 향한 진솔한 애정으로 채운다. 아니, 애정이라기보다 초라한 삶의 실상을 마주하며 느끼는 연민에 가깝다. 까뮈가 ‘느낀’ 삶의 부조리가 이런 것일까? 아니면 보잘 것 없는 삶에 대한 연민 때문일까? 삶의 목표는 없고 살아야 할 이유 역시 없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찾고 또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삶에 내가 주는 선물이다.

기고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김원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경제본부장

활과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농어민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행복해야 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들도 지켜질 것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는 먹거리 공급 부족은 물론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단순히 농어촌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와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농어촌의 정주 여건이 열악한 것은 지방 재정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 인구가 적으면 세금이 적게 걷힐 것이고 보건·복지·교육·교통 등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51.4%인 반면에 전남도는 최하위인 19.7%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30.5%보다 낮았다. 도시에 집중되는 세금을 지방으로 돌려 지역 간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농업 확대와 열악한 환경도 원인이다.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가 전체 예산은 2017년 400조 5000억 원에서 2020년 512조 3000억 원 규모로 28%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 4887억 원에서 15조 7743억 원으로 8.9% 늘어나는데 그쳤고 점유비

도 3.08%에 불과하다. 도시 근로자 소득과 비교한 농가 소득도 64.9%(2019년)에 그친다. 각종 의료·교육·문화·대중교통 시설 등도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20~40대 젊은 층이 기피할 만하다. 이러한 도농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향 사랑 기부금제’(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새로운 세금은 아니고, 현재 시행중인 정치 후원금의 세액 공제 체계와 유사하다.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을 보완하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 지자체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농어촌 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납부액이 늘고 있

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부금 총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도가 높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수준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가 증가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하니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향세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한국갤럽과 농민신문이 실시한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59.7%로 나타났다.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며, 정부 100대 국정 과제중 하나이다. 농촌은 인류의 고향이고 생명의 터전이다. 때문에 농업·농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청년농 육성과 고향세 도입은 필수이다. 고향세 관련 법은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 재정 건전화, 지방 분권 촉진,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21대 국회사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고향세 관련 법 통과에 적극 나서 농어촌 주민과 소멸 위기 지역 지자체에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누구든지 쓰던 물건을 버릴 때는 잠시 주저하기 마련이다. 물건이 아깝기도 하지만 저마다 물건과 얽힌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건에 대한 애착은 이사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오랫동안 쓴 물건을 한사코 가져가려는 부모와 헌 물건을 버리려는 자식들 간 신경전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무엇이든 정도가 지나치면 병이 되는 법.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습관은 강박 장애의 일종이다. 이는 절약이나 수절과는 극명하게 다르며, 심한 경우 치료가 필

**無等鼓**

누구든지 쓰던 물건을 버릴 때는 잠시 주저하기 마련이다. 물건이 아깝기도 하지만 저마다 물건과 얽힌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건에 대한 애착은 이사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오랫동안 쓴 물건을 한사코 가져가려는 부모와 헌 물건을 버리려는 자식들 간 신경전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무엇이든 정도가 지나치면 병이 되는 법.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습관은 강박 장애의 일종이다. 이는 절약이나 수절과는 극명하게 다르며, 심한 경우 치료가 필

다. 저장 강박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맨해튼의 4층짜리 집에서 살다 숨진 ‘폴리어 형제’ 이야기가 있다. 이 형제는 상류사회 부모로부터 교육도 받았고 전문 직업을 가진 지식인이었지만 저장강박 환자의 원조가 됐다. 이 형제는 1947년 3월 21일, 은갓 잡동사니를 쌓아온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이에 앞서 시체 썩는 악취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 조사 결과 형제가 이 집에 모이든 잡동사니는 무려 170t. 어마어마한 쓰레기 때문에 집은 붕괴 위기에 처했고, 쓰레기 속에서 시체를 찾는 데만 같은 행동은 저장 강박 장애, 저장 강박 증후군, 강박적 저장 증후군으로 불린다. 이 밖에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이름을 따 ‘디오게네스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달리노인 창 증후군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저장 강박증은 원인이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치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됐기 때문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치매나 조울증도 요인으로 꼽힌

**‘저장 강박증’**

다. 저장 강박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맨해튼의 4층짜리 집에서 살다 숨진 ‘폴리어 형제’ 이야기가 있다. 이 형제는 상류사회 부모로부터 교육도 받았고 전문 직업을 가진 지식인이었지만 저장강박 환자의 원조가 됐다. 이 형제는 1947년 3월 21일, 은갓 잡동사니를 쌓아온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이에 앞서 시체 썩는 악취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 조사 결과 형제가 이 집에 모이든 잡동사니는 무려 170t. 어마어마한 쓰레기 때문에 집은 붕괴 위기에 처했고, 쓰레기 속에서 시체를 찾는 데만 같은 행동은 저장 강박 장애, 저장 강박 증후군, 강박적 저장 증후군으로 불린다. 이 밖에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이름을 따 ‘디오게네스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달리노인 창 증후군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저장 강박증은 원인이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치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됐기 때문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치매나 조울증도 요인으로 꼽힌

다. 저장 강박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맨해튼의 4층짜리 집에서 살다 숨진 ‘폴리어 형제’ 이야기가 있다. 이 형제는 상류사회 부모로부터 교육도 받았고 전문 직업을 가진 지식인이었지만 저장강박 환자의 원조가 됐다. 이 형제는 1947년 3월 21일, 은갓 잡동사니를 쌓아온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이에 앞서 시체 썩는 악취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 조사 결과 형제가 이 집에 모이든 잡동사니는 무려 170t. 어마어마한 쓰레기 때문에 집은 붕괴 위기에 처했고, 쓰레기 속에서 시체를 찾는 데만 같은 행동은 저장 강박 장애, 저장 강박 증후군, 강박적 저장 증후군으로 불린다. 이 밖에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이름을 따 ‘디오게네스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달리노인 창 증후군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저장 강박증은 원인이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치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됐기 때문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치매나 조울증도 요인으로 꼽힌